

성별	남	나이	59세	직종	취부	직업관련성	쟁점
----	---	----	-----	----	----	-------	----

1. 개요

한○○는 1995년부터 약 16년을 넘게 조선소 및 하청업체에서 취부작업, 부분적 사상작업을 수행하던 자로 2010년 1월 지속되는 목부위 통증으로 내원 부산 모 대학교 병원에서 폐암(비소세포암 :선암)으로 진단받았다.

2. 작업환경

최근 근무한 OO중공업의 작업환경측정결과 취부작업에서의 유해인자 노출 정도는 기준치 미만이었고, 취부작업은 대부분 옥외작업으로 주로 연강작업을 하였다. 하지만 그 이전의 작업환경측정기록은 확인 할 수 없는 상태로 과거의 작업 환경과 노출물질, 즉 용접봉이나 모재의 성분, 밀폐작업의 유무, 석면 사용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웠다.

3. 의학적 소견

2007년 폐결핵으로 약물치료를 받은 것 이외에는 특별한 질병력은 없었다. 2000년 이후 급성기관지염으로 자주 병원에 다녔으며 건강검진상 특이소견은 없었다. 석면폐증을 포함한 진폐증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. 폐암의 가족력도 없었고 25년전에 금연하였다. 2010년 진단받을 당시 폐암, 천골전이로 항암수술 및 방사선 시술을 받았다.

4. 고찰

과거에는 스텐인레스강 용접자에서만 폐암 위험도가 높다고 하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스텐레스강뿐 만 아니라 연강을 용접한 근로자에서도 폐암 위험도가

높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다.

5. 결론

한○○에게서 발생한 폐암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두가지 의견으로 나뉘어 졌다.

업무관련성 있음

발암물질, 크롬, 니켈, 석면노출이 확인되기는 어려우나 조선소 작업에서 상
기 발암물질의 인접노출과 노출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용접흡의 노출수준은
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의 역학조사결과에서는 연강용접자에서도 폐
암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25년동안 금연은 폐암발생의 직업적
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음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
판단됨

업무관련성 낮음

용접 흡에 상당한 노출이 있고 개인적 요인을 찾기 어려우나 석면, 크롬,
니켈 등 폐암유발 발암물질에의 노출수준이 암을 일으킬 정도로 높았을 것이
라고 판단하기 어려움. 대부분을 옥외작업장에서 종사하였고 용접작업자보다
상대적으로 용접흡의 노출이 적은 취부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때 업무관련
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